

기획

다도해의 보석 섬

17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고흥반도에서 바라본 지죽도 전경. 2001년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왕래는 쉬워졌지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덜 된 탓에 자연 그대로의 절경을 간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참장어 잡고 김 키우고... 바다 기댄 순박한 삶

고흥읍에서 자동차로 30분쯤 달리면 고흥반도의 끝에 닿는다. 반도끝에서 440m 길이의 연륙교를 타고 도착한 곳은 행정구역상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지죽도다. 2001년 1월 연륙교가 개통된 터라 섬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면도 있지만 1.07km 면적의 엄연한 섬이다.

섬 안에 있는 천연의 호숫가에 지초라는 풀이 많아 지초의 지(芝)와 호수의 호(湖)자를 따 지호라고 부르다가 북서쪽에 있는 인근 죽도의 머리글자를 따 지죽도라고 불리게 됐다. 지초는 뿌리를 약재와 염색의 재료로 쓰는데 진도 홍주의 원료로 유명하다. 지죽도는 소와 인연도 깊다. 소가 특히 지초를 좋아하고 섬 모양도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닮았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지우(芝牛)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죽도와 인근 죽도는 별개의 섬이지만 죽도 사람들이 육지로 가려면 반드시 지죽도를 경유하는 탓에 생활권이나 문화가 같은 섬이나 다름 바 없다. 지죽도에 있는 지호마을과 죽도의 죽도마을이 서로 마주보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닌 듯 하다.

지죽도에 사람이 정착하게 된 것은 조선 순조때 경남 김해에 살던 김영장이 이곳에 유배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아직도 마을 주민들중에는 김해 김씨가 가장 많고 연륙교 주변 산에 김해 김씨의 묘가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지호마을 이장 김인근(66)씨는 "원래 우씨와 강씨가 섬에 정착한후 김씨가 들어와 우씨와 결혼을 했다"고 말해 향토사와는 다른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우씨와 강씨가 많지 않은 것을 볼때 신빙성은 떨어져 보인다.

두 섬에는 현재 150가구에 354명(지죽도 116가구에 251명, 죽도 34가구에 103명)이 살고 있다. 주 업은 '하모'로 불리는 참장어와 김.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참장어와 김으로

2001년 연륙교 생겨 육지와 연결

해안 기암절경 관광지 개발 속임

다도해 해상공원 구역 해제 기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겨우내 키운 김을 3~4월에 수확한후 곧바로 참장어 잡이에 나서 8월까지 마치면 또 다시 김 채묘와 양식을 하는 방식으로 연중 이 두가지 해산물에 기대 산다.

요즘은 김 채묘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로 지난 14일 섬에서는 만난 주민들도 지름이 10여m에 달하는 대형 물레방아 모양의 채묘기에 그물을 감아 김 종묘(씨앗)를 불리는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채묘기 한대에는 폭 1.8m, 길이 50m의 그물 1척을 50개까지 감아 종묘를 불일 수 있다.

고흥군 김중묘배양협의회장인 이 마을 김원태(75)씨는 "채묘를 끝낸후 40여일이 지나면 첫 수확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말이면 햇김이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년에 보통 6~7회 수확을 하지만 3~4번째 수확한 김 맛이 가장 좋다"며 "지죽도 김은 청정해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자라 품질이 최고다"고 자랑했다.

해안 절경도 지죽도의 자랑이다. 서쪽 해변에 백사장이 200~300m에 달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주변에 '금강죽봉'이라는 암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금강죽봉은 바위 모양이 마치 왕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이곳에는 사철 약수가 흐르는 석굴이 있다. 해안도로가 섬의 3분의 1 가량만

개통돼 금강죽봉 절경을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금강죽봉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금강죽봉에는 흡사 남섬의 섬기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시산도의 여성 음부 모양의 바위와 마주보고 있다.

지호마을 이장 김씨는 "두 바위의 곱함이 잘 맞아 시산도 처녀가 지죽도 총각과 결혼하면 잘 산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시산도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죽도 주민들의 숙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이 해제돼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죽도는 동쪽으로 나로도와 마주보고 있어 섬 대부분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꾸준히 구역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고흥군이 고흥읍 문화회관에서 국립공원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흥군은 국립공원 해제시 대체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죽도와 나로도 인근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대신 팔영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박래복 고흥군 부군수는 "팔영산의 어디까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지를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는 알수 없지만 팔영산이 대체 구역으로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섬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죽도 주민들이 김 채묘를 위해 대형 원통형의 물레방아에 그물을 감고 있다.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Shanghai, Soju, and Hangzhou. Includes contact info (062-224-0022), various travel packages with prices, and a list of services like visa assistance and airport transfers.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외광고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수령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임(일정표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자비용 별도 ■ 서울시 중구 광명동 1번지(주)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서울) ■ 관광플랜시프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6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객실: 2급 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 ■ 상가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원짜리 오동변동 있음)